

게으름에 대한 경고

핵심 구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 주었으니, 너희가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하며, 주 예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사도행전 20:35

선별된 성경 구절:

사도행전 20:33-35; 데살로니가후서 3:6-12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날 무렵 항구 도시인 밀레토스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출항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인근 도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연락을 보내 그들과 만나러 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온종일 어떻게 살았는지, 온유함과 눈물과 시련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살았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는 “나는 결코 주저하지 않고... 공개적으로나 너희 집안에서 너희를 가르치며,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사도행전 20:18-21

바울은 장로들에게 “너희 자신과 온 양 떼를 잘 돌보라”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목자처럼 돌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도행전 20:28). 여기서 바울은 장로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부목자로 세우신 형제들에 대해서도 이중의 책임을 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주의하라”는 것은, 즉 경계하고 너희가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너희의 동기도 살피라는 뜻입니다.

그 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도 탐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내 두 손으로 내 자신의 필요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당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20:33, 34). 바울은 본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동안 자신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 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3, 데살로니가전서 2:9; 데살로니가후서 3:8; 고린도전서 4:12

다른 번역본의 핵심 구절을 인용하며, 바울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으니, 내가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하며,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비록 줄 돈이 없더라도 우리 각자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관대하게 대할 기회가 넘쳐납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 혹은 그저 다정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낙심한 사람에게는 때로 한 줌의 금보다 더 큰 가치가 되곤 합니다.

“나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타인과 그들의 필요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으름”은 나누는 사람의 반대이며, 영적 약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기심의 한 형태입니다. (디모데전서 5:13). 바울은 게으름을 피우는 형제들을 향해 담대히 말하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선언하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빵을 먹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7-12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마음으로” 타인에게 베푸는 기술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2;

고린도후서 9:7).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이는 온 세상이 그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야고보서 1:17; 요한복음 3:16,17